

원미경 “주름진 내 얼굴...남편은 삼 물어난다 좋아해”

43년차 배우...탄탄한 연기 내공 관록 카리스마

“배우의 생명은 표정...성형 생각해본적 없어”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내가 너무 예쁘다고 한다. 성형수술은 한 번도 생각해본 적 없다.”

원미경은 자신의 외모 얘기가 나오자 “남편이 내 얼굴을 너무 좋아한다”며 환한 웃음소리를 전했다.

최근 tvN 월화극 ‘이는 건 별로 없지만 가족입니다’에서 ‘진짜 엄마’ 같은 모습으로 호평 받았다.

주름진 얼굴은 자연스런 연기를 돋보이게 했고, ‘늙었다’는 말보다 ‘보기 좋다’라는 반응이 많았다.

지난 21일 종영한 ‘가족입니다’는 가족 같은 타인, 타인 같은 가족의 오해와 이해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냈다.

남편 김상식(정진영 분)에게 ‘졸혼’을 선언해 가족들에게 충격을 안기지만 누구보다 가족을 믿고 사랑한 엄마 ‘이진숙’으로 분한 원미경은 진실되고 몰입감 넘치는 연기로 다시한번 주목 받았다.

환갑을 넘긴 43년차 배우의 탄탄한 연기 내공으로 관록의 카리스마를 드러냈다.

원미경은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미국으로 날아갔다.

가족이 너무 그리워 마지막 촬영 직후 바로 미국행을 택했다.

24일 전화로 인터뷰한 원미경은 “약 5개월 간의 촬영 기간 동안 한국에 혼자 있으면서 많이 외로웠다”고 했다.

“혼자 있으면서 대사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눈물이 많이 났다. 계속 혼자 있으니 우울해져서 많이 울었다.”

하지만 ‘가족입니다’ 출연진에 대해서

는 ‘또 다른 가족’을 만난 것 같았다고 강조했다.

원미경은 “드라마를 하고 온 게 아니라 또 다른 가족을 만나고 온 것 같다”며 “이산가족, 마치 진짜 가족을 떠나온 것 같아 너무 섭섭하다. 5개월 동안 정이 많이 들고, 서로 가슴으로 한 드라마”라고 말했다.

극중 둘째 딸 한예리와 막내 아들 신재하가 깜짝 공황 배웅을 나와 감동을 줬다고 했다.

원미경은 “마지막 촬영 마치고 바로 다음날 새벽 공항을 가야 해서 저녁 식사도 간단히 하고 왔는데 예리, 재하가 공항에 나와서 깜짝 놀랐다”며 “눈물이 날 정도였다. 새벽에 너무 고마웠다”고 전했다.

드라마 설정과 실제 자신의 상황이 묘하게 흡사해 깜짝 놀랐다.

그는 “딸 둘에 아들 하나인 것도 같고, 막내 아들이 애교쟁이인 것도 같다”며 “지금 큰 딸이 31세, 둘째 딸이 29세, 막내 아들이 21세인데 극중 자식들 간 나이 차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후배들에게 연기를 배웠다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저는 과거 시대의 연기를 했는데 요즘 시대의 연기를 배웠다. 후배들의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게 열심히 하더라.”

드라마 최종회는 미국 집에서 가족들과 다같이 모여서 시청했다.

그는 “아이들은 엄마가 이 드라마에 나와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며 “마지막 장면에서 가족 5명이 모였는데, 마치 우리 가족

5명이 모인 것 같았다”고 전했다.

남편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원미경은 “남편은 드라마에 나오는 내 얼굴이 너무 좋다고, 주름지고 조금씩 늙었지만 삼 물어나는 그 얼굴을 사랑한다고 했다”며 “한국에서 통화할 때마다 항상 제 얼굴이 너무 좋다고 했다”고 수줍게 말했다.

성형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나를 너무 예쁘다고 해 성형 생각은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다”며 “31살 장녀에게도, 너의 지금 얼굴이 너에게 맞는 얼굴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원미경은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고 내가 옳다는 건 아니지만, 나는 배우는 카나 얼굴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주의”라며 “피아노 치는 사람에게 손이 가장 중요하듯이 배우의 생명은 표정이다.”

표정을 짓는 데 방해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03년 가족과 미국으로 떠난 뒤 오랜 기간 ‘엄마’, ‘주부’로 전념해 살았다. 그는 “주부로서, 엄마로서 살았는데 가족 돌보는 재미가 너무 좋았다”며 “이번 드라마는 그런 의미에서 남다르게 다가온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마음 고생을 했다는 전언이다.

그는 “올 초 한국에 촬영하러 온 뒤 코로나19가 심해져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다음에는 미국이 더 심해지더라”며 “한국에서 PD였던 남편이 미국에서 개척교회 목사도 활동하는데 교회 활동도 타격이 있다. 여기 와서 난 ‘교회 사모’인데, 참 버라이어티하게 살고 있다”고 웃음을 터트렸다.

차기작 계획은 아직 없다. 원미경은 “당분간은 진짜 가족에 충실하고 싶다”며 “한



국에 올 계획은, 작품이 잡히지 않는 한 없을 것 같다. 미국에서의 나의 역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가족입니다) 이런 작품을 또 만난다면 연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며

여지를 보였다. “나이가 있으니까, 좋은 작품을 해보고 싶다. 좋은 연기자로서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

뉴스

씩쓰리 성공적 데뷔...뮤비 171만뷰·음원 1위까지

멤버들 개인곡 내달 1일 발매될 예정



MBC 예능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를 통해 탄생한 신인 그룹 씹쓰리(SSA K3)가 뮤직비디오와 음악방송 프로그램 조회 수 기록을 세움과 동시에 음원 차트 1위를 거머쥐며 성공적 데뷔 신화를 썼다.

씩쓰리는 지난 25일 MBC ‘쇼! 음악중심’에서 타이틀곡 ‘다시 여기 바닷가’로 공식 데뷔했다.

타이틀곡은 2위, 씹쓰리가 커버한 그룹 듀스의 ‘여름 안에서’는 1위 후

보에 올랐고, 씹쓰리 출연영상은 포털 사이트에서 누적 조회수 170만을 육박한다.

‘다시 여기 바닷가’는 음원 공개 이후 주요 음원 서비스 인기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공개한 ‘그 여름을 틀어줘’ 역시 벽스 1위, 지니 2위 등으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해 화제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씹쓰리의 음악방송 데뷔 무대

후에는 MBC ‘놀면 뭐하니?’가 방송됐다.

씩쓰리 유두래곤(유재석), 린다G(이효리), 비룡(비·정지훈)의 ‘다시 여기 바닷가’ 뮤직비디오 마지막 촬영 모습과 뮤비 풀버전이 공개됐다.

26일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방송된 ‘놀면 뭐하니?’는 광고 관계자들의 주요 지표로 꼽히는 2049 시청률에서 6.9%(2부, 수도권 기준)를 기록해 동시간대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다.

최고의 1분은 방송 말미에 공개된 뮤비 장면(9.7%)이었다.

씩쓰리의 뉴트로 감성과 멤버들 간 찰떡궁합 호흡이 눈길을 끌었다.

‘놀면 뭐하니’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뮤비 역시 171만 가량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씩쓰리는 각 멤버의 개인곡에 대한 소식도 알렸다.

유두래곤은 광희(S.B.N)와 함께 ‘박토벤’ 박현우 작곡가의 ‘두리주와’ 듀엣을 결성했고 비룡은 마마무와 함께 ‘신난다’ 녹음에 돌입했다.

린다G는 코드쿤스트의 멜로디에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가사로 풀어낸 ‘LINDA’를 공개할 예정이다.

올미래의 피쳐링까지 더해져 기대를 끌어올렸다.

각 멤버들의 개인곡은 다음달 1일 발매될 예정이다.

‘놀면 뭐하니’ 방송 후에는 씹쓰리의 개인곡과 히든 트랙까지 포함된 데뷔 앨범 온라인 예약 판매가 시작되기도 했다.

씩쓰리는 다음주 엠넷의 음악 방송 프로그램 ‘엠카운트다운’에서 두 번째 생방송 데뷔 무대에 오른다.

앞서 이들은 비룡의 ‘딱밤 때리기’, 린다G의 ‘발로 한 대씩 걸어차기’ 등의 이색 1위 공약을 언급한 바 있는데, ‘엠카운트다운’에서 이들의 1위 공약이 실현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뉴스

‘온앤오프’ 김민아, 외제차와의 일상 공개



방송인 김민아가 평소 알려진 ‘집순이’ 이미지와 다른 자신의 자동차와의 일상을 공개했다.

김민아는 지난 25일 방영된 tvN ‘온앤오프’에서 53개월째 매일 64만원 가량의 자동차 할부금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생애 첫 셀프 세차에 나선 모습을 공개했다.

김민아는 세차장을 찾았지만 세차 방법을 몰라 고군분투했다.

종전 주입 후 정해진 시간 안에 물을 뿌리고 세척액을 바르고 해양함에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차에 물이 흥건한 채로 귀가하는 초보 면모를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김민아는 세차 후 경기 양평 두물머리로 드라이브도 즐겼다.

그는 방송에서 “집에만 있으니 활력을 잃는 것 같다. 반나절의 짧은 ‘오프(OFF)’로 충전 받은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은 시청률 조사업체 닐슨코리아가 유료플랫폼과 전국을 기준으로 진행한 남녀 2049 시청률에서 평균 1.9%, 최고 2.7%를 기록했다.

자체 최고 시청률 경신과 함께 케이블, 종편 포함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tvN ‘온앤오프’는 바쁜 일상의 분업(ON) 속에서도 ‘사회적 나’와 거리두기 시간(OFF)을 갖는 스타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담은 ‘사적 다큐’ 예능이다.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40분 방영된다.

뉴이스트 민현, 대만 드라마 ‘상견니’ OST 커버

팬 위한 ‘깜짝 선물’



그룹 뉴이스트 민현이 팬들에게 깜짝 선

물을 전했다.

지난 24일 저녁 뉴이스트 공식 SNS에는 민현이 대만 드라마 ‘상견니’ OST ‘상견니상견니’ 커버곡을 공개한다는 소식과 함께 한 장의 티저 사진이 게재됐다.

공개된 사진 속 민현은 교복 차림으로 우산을 쓴 채 정면을 응시한다. 비 오는 날 특유의 감성이 물씬 느껴지는 촉촉한 분위기와 청춘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시키는 비주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또 교복에는 민현의 생일인 ‘950809’가 적혀 있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지 다양한 추측들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민현은 하반기 JTBC 방송 예정인 드라마 ‘라이브온(가제)’의 주연으로 발탁됐다.